九州大学学術情報リポジトリ
Kyushu University Institutional Repository

[15]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https://hdl.handle.net/2324/2186150

出版情報：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5, 2015-03-3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挨　拶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長　中野　等

2014年４月、松原孝俊教授のあとを受け、４代目のセンター長に就任いたしました中野　等です。九州大学での本務は伊都キャンパスに本拠を置く大学院比較社会文化研究院教授で、学府は地球社会統合学府（2014年度の改組前は比較社会文化学府）を担当しております。専門は日本史学、とりわけ中近世移行期を専門に研究しております。別の言い方をすれば、戦国時代から織田信長・豊臣秀吉の時代を経て江戸幕藩体制の確立期となります。この時代、いろいろな意味で日本社会は激動し大きく変容していきました。この間しばらく豊臣政権の「壬辰倭乱」「丁酉再乱」（日本での呼称は「文禄・慶長の役」「朝鮮出兵」など）を研究の主軸に置いてきたことから、韓国にもしばしば足を運ぶこととなり、多くの韓国人研究者の方々とも親しくおつきあいをする機会を得ました。こうして何時しか、九州大学において「韓国学」を研究する者の一人に数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した。とはいえ、私は韓国語をまったく理解できませんし、九州大学の「韓国学」研究者として正規の「市民権」を有しているとは、決して考えておりません。

そのような本来担うべき資格も無いはずの私がセンター長の重職を任されるに至った所以は、ひとえに本センターが歴史の大きな節目を迎えようとしているからに他なりません。成熟すべき日韓関係が大きな試練の時を迎えようとするこのとき、センターの創設にかかわって来られた諸先輩方もそれぞれにご勇退の季を迎え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極めて困難な時に、九州大学はどうあるべきか、本センターは研究施設として何をなすべきか、様々な難問が突きつけられています。もとより非力極まりないセンター長が独力で立ち向かえることなど皆無といっても良いでしょう。センター長就任以来、私はこれからの「韓国学」を担うであろう学内の清新な方々にお声がけをして「タスクフォース」を組織し、今後の本センターのあるべき姿を指し示していただきました。今後の研究戦略はもとより学内外における本センターの立ち位置など多くの示唆を得、ようやく改革の第一歩を踏み出すところまでやってきました。2015年度の当初には組織改革をすすめ、これまで４部門統合して研究企画戦略部門ひとつにまとめ、その下に柔軟に研究・教育課題に取り組むためのユニット制をしくことを予定しています。部門の名称は、九州大学の韓国学研究をセンターの内に閉じ込めるのでなく、本センターが核ないしハブとなって九州大学全体を巻き込む研究展開を進めたいという企てが含意されています。もとより、九大を中心とする学外との連携を積極的に組織化することも視野にいれる必要があります。

とはいえ、センター長としてようやく試行錯誤の一年目が終わったばかりです。この一年間足許を固めることばかりを気にしたため、組織としてのパフォーマンスが低下したのではないか、あるいはアクティビティーが感じられないなど内外からのご批判を受けてきたのも事実です。偏にセンター長の不甲斐なさに因るものですが、センターは決して終焉への途をたど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次世代の日韓関係のあるべき姿はどうなのか、さらにそうした中で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がいかにあるべきか、今はそうした熟考の時であり、飛躍のための雌伏の時と考えています。屡述にはなりますが、創設以来の大きな節目を迎え、今後のあるべき姿を模索する本研究センターに、従前とかわらぬご支援・ご高配を冀いつつ、年報の巻頭によせるセンター長挨拶を擱筆いたします。

한국연구센터장 인사말

규슈대학 나카노 히토시

2014년 4월에 마쓰바라 타카토시 교수 후임으로 제4대 센터장으로 취임한 나카노 히토시입니다. 저는 규슈대학 이토캠퍼스에 있는 비교사회문화연구원 대학원 교수이며, 학부 (学府 : 대학원 교육) 는 지구사회통합학부 (2014년도 조직개편 이전에는 비교사회문화학부) 소속입니다. 전공은 일본사학, 특히 중세와 근세 이행기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시대부터 오다 노부나가 (織田信長) 와 도요토미 히대요시 (豊臣秀吉) 시대를 거친 뒤 에도막부 (江戸幕藩) 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사회가 크게 격동하며 변화한 시기입니다. 그 동안 도요토미정권의 '임진왜란' 과 '정유재란' 을 중심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한국을 종종 방문하여 많은 한국 연구자와의 친분과 학문적 교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부터인가 저도 규슈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자 중 한명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연구자로써도 무르익지 못해, 규슈대학의 '한국학' 연구자로 당당히 자부할 형편은 아닙니다.

자격이 부족한 제가 센터장의 직책을 맡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연구센터가 시기적으로 큰 변화를 맞아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되어야 할 일한관계가 큰 시련을 맞은 현시점에, 한국연구센터 창설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하나 둘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저에게 이러한 중직이 맡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규슈대학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연구센터는 연구기관으로써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부터 능력과 힘이 부족한 제가 이와 같은 문제를 혼자 해결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취임 이후 '한국학' 을 공부하는 학내의 청신한 연구자들에게 요청하여 '테스크포스' 를 조직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본 센터가 지녀야 할 자세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 받았습니다. 향후 연구전략으로부터 학교 내외에서 한국연구센터가 있어야 할 위치 등 많은 시준점을 얻어, 이제 겨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당초에는 조직개혁을 진전시키고, 그 동안 수행해 왔던 네 가지 부문을 통합시켜 연구기획전략부문의 하나로 묶고, 그 아래에서 여러 가지 연구・교육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유니트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문의 명칭은 규슈대학 한국학연구를 센터 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한국연구센터가 핵심 내지 허브가 되어 규슈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연구를 전개하고 싶다는 의도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슈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 밖의 제휴도 적극적으로 조직화 해 나가는 것도 시야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으로써 겨우 시행착오의 1년이 끝난 정도입니다. 지난 1년 간 기반을 단단히 한 정도를 염려하여, 조직으로써의 움직임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또는 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센터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나타난 우려일뿐, 한국연구센터가 종언의 길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세대 일한관계의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은 그에 대한 숙고의 시기이며 비약을 위한 준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창설 이후 큰 변화를 맞고 이후 지녀야 할 자세를 모색하는 한국연구연구센터에 변함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